4076 4 7709

▮로나 바이러 **그**스가 다시 기 승을 부리고 있다. 지 난 15일 현재 인구 백 만 명당 확진자수가 1 만 6천 명이 넘었다. 미국과 일본을 제치 고 세계 최고로 우뚝 섰다. 윤석열씨가 집 권 100일만에 이뤄낸 "과학방역"의 위엄이

다. 직무수행평가 24%라는 그 어렵다는 경지를 밟았다.

윤씨의 문자지과 "따따 바이러스"

코로나 못지 않게 "막말 바이러스"도 창궐하고 있다. 막 말의 순도와 강도가 높아가는 모습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 다. 웬만한 비판은 이젠 식상할 뿐이다. 지난 달 말 윤석열씨 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"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"라며 보 낸 문자질이 발각되었다. 자신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준 여당 대표를 짓밟는 말이었다. 배은망덕이나 양두 구육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. 윤씨는 음 주운전과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던 박순애씨를 "그 렇게 훌륭한 사람"이라 치켜세웠지만, 박씨는 5세입학사태 로 맥없이 주저앉았다. 광복절 경축사에서 뜬금없이 독립운 동을 자유운동이라고 규정했다. 생뚱맞은 자유타령이다. " 자유"에 한을 품고 죽은 처녀귀신이라도 씌인 것일까? "내 소원은 대한독립"이라던 김구를 비웃는 말이다. 최소임금 이하로도 일하고 싶은 자유에는 게거품을 물면서도 반지하 에라도 살고 싶어하는 자유에는 침묵한다. 폭우로 침수피해 가 난 것을 보고도 퇴근한 윤씨나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 실이라고 둘러대는 비서실이나 오십보백보다. 김기춘씨는 대통령이 있는 곳이 집무실이라고 했던가. 한덕수씨는 윤씨 의 아파트가 지하벙커 수준의 시설을 갖췄다며 한 술 더 떴 다.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배설한다. 가관이다. 그럴 양 이면 뭐하러 난리법석을 피우며 집무실을 옮기고 아파트 쇼 핑하듯 공관을 들쑤시고 다녔단 말인가.

윤씨의 제멋대로 상식과 정의와 공정이 작두를 타고 춤 추자 "막말 바이러스"가 널뛰고 있다. 사실상 폭력이다. 너 죽고 나 살자가 결국은 다 죽자로 끝난다. 당사자는 물론 다 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한다. 상처를 헤집고 갈등 을 부추기고 증오를 불지른다. 반드시 끝장을 봐야만 멈추 는 보복의 악순환이다. 이런 막말 잔치에는 시시비비를 따 져볼만한 터럭조차 없다. 그저 구역질나는 일이다.

바지현· 바용진의 과 계한 발언

대통령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한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다. "어대명"이니 "확대명"이니 친명이니 비명 이니 반명이니 호사가들의 말잔치가 무성하다. 이재명씨가 7할이 넘는 지지를 골고루 받으며 당권을 거머쥐게 된 형국이다. 그런데 지난 5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현씨는 당내 "내로남 불"과 "팬덤정치"를 비판하면서 "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"해야 한다고 말했다. 하필 적들의 언어 로 스스로를 자학하는 어리석음이라니... 성폭력이든 뭐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다. 대 체 586은 무슨 죄를 지었으며, 국민 신뢰와 586 용퇴가 무슨 관계 가 있단 말인가? 586을 전부 땅에 묻으면 신뢰를 얻고 선거에서 이 긴단 말인가? 아마도 수구세력이 만세삼창을 부르며 반길 일이다. 정치인은 나이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진퇴가 정해질 뿐 이다. 양김씨의 청년정치를 말하지만 분수도 모른 채 스스로 김대 중이 될 노력은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쩍 벌리고 있으니...

박씨는 한걸음 더 나가 이재명씨의 불출마를 주장하였다. 여당 이 보복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민생이 실종되지 않을까 우려한댄 다. 그러면서 자신은 자격미달인데도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으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고 나섰다. 경우에 맞 지 않은 소리다. 설령 대선 패배가 이씨의 잘못이라 해도 출마여 부는 이씨가 정하는 것이다. 박씨의 우려는 한심한 상상이다. 그럼 여당이 보복할 가치조차 없는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가? 2할대 지 지율로 힘겨운 경주를 하고 있는 박용진씨도 마찬가지다. 이씨의 사법리스크를 운운하며 말을 바꿨다느니 선민의식이 있다느니 말 꼬투리를 잡기에 급급하다. 군부가 김대중씨를 싫어하니 자신이 단일후보가 되어야 한다던 김영삼씨의 궤변과 무엇이 다른가? 이 낙연씨가 실패한 까닭이다. 과거의 군부와 현재의 검찰이 그렇게 도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가? 그들이 싫어하면 지지율 7할 후보도 사지로 내몰고 동지도 뭐고 다 먹잇감으로 내놓을 참인가?

박지현씨도 박용진씨도 과격하다. 사람들이(적들이) 듣기 좋아 하는 말로 경쟁자를 흔들어 자신의 잇속을 챙기겠다는 것이다. 박 용진씨는 "한 계파가 꿩먹고 알먹고 국물까지 먹고 있다"며 이씨 의 사당화를 우려했지만, 무기력과 질투심을 돌려서 말한 것이다. 노무현씨처럼 계파없이 당에 들어와 대선후보가 되고 압도적 다 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씨에게 계파라니... 사당화는 저주에 가 까운 상상이다. 두 박씨는 왜 자신이 김대중·노무현·이재명에 미 치지 못하는지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. 적어도 그들은 누구 덕 을 보지 않았고,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뜻을 품었고, 치열하 게 깨지면서도 버티고 지켰던 사람이다. 유권자는 잠깐 정신줄을 놓을 수는 있으나 결코 어리석지 않다. 귀신같이 깜냥을 알아본다.

최소한의 발언은 경우에 맞는 많이다

소정 선생님은 비폭력을 말씀하시면서 꼭 필요한 말을 최소한 으로 하라고 했다. 무서울 때에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이기에 사실이 고 진실이어야 한다. 본능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연한 논리로 진심을 담아 풀어내야 한다. 애증에 휘둘리지 말고 곁가지에 흔들 려서는 안된다. 반면 기회주의자들은 무서울 때에는 코빼기도 보 이지 않다가 상황이 호전되면 기어 나와 대중이 좋아할 만한 말을 쏟아내고 다닌다. 인기를 노린 과격한 발언이다. 사실이든 아니든 진실이든 아니든 대중을 호릴 수 있는 말이면 된다. 앞뒤가 맞든 안맞든, 아군에게 불리하든 말든 그들은 가리지 않는다. 말에 논 리가 있을지언정 진심은 찾아보기 어렵다. 잇속이 있을 뿐 동지에 대한 배려는 없다. 쓸데없이 말이 많다. 긴가민가 혼란스럽다. 이 재명씨가 간절함을 담아 꼭 필요한 말만 담하게 해주길 바란다. ₡